

# 회원사 동정

데이콤

한국PC통신(HITEL)

삼성데이터시스템

LG정보통신

한국전자통신연구소

대한무역진흥공사

연구개발정보센터

## 데이콤

### 강원도청 문서전송망 본격 개통

데이콤(대표 손익수)이 강원도청에 문서전송망을 구축, 서비스를 개시한다. 데이콤이 이번에 구축한 서비스는 PC를 이용해 컴퓨터 상호간과 팩스, 텔렉스 등과도 자유로운 메시지 교환이 가능한 첨단 다중매체통신 서비스인 데이콤 메일-400이다. 데이콤은 이를위해 지난 1월 본사의 데이콤 메일-400 호스트 컴퓨터내에 강원도청용 전용서버를 별도로 구축한 것을 비롯, 강원도청 산하 18개 시군의 행정관서를 전화망과 전용회선(9천6백BPS급)으로 연결하는 전용 네트워크를 구축, 지난 2월부터 4월 말까지 3개월동안 시험서비스를 실시했다. 데이콤은 또 도청 공무원들의 문서 송·수신의 편의를 도모하기위해 일반행정기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하나 워드프로세서나 dBASE, 로터스로 작성한 자료를 별도의 변환과정 없이 곧바로 송·수신할 수 있는 강원도청용 전용 소프트웨어를 함께 개발했다.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문서를 송·수신할 경우 문서를 자동적으로 압축·해독, 송수신에 소요되는 시간과 통신비를 크게 줄여 대민업무와 지방행정업무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강원도청은 기대하고 있다. 데이콤은 올 하반기부터 강원도의 읍·면·동

행정관서와 연관성이 있는 유관기관들과의 연결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타도 행정기관의 문서 전송망도 적극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데이콤 메일-400서비스”는 전세계 메시지 표준규약인 CCITT X-400계열의 권고안을 준용하는데 데이콤이 지난 '89년 10월 국내 최초로 개발한 메시지 교환시스템(MHS)으로 현재 세계 34개국 76개 MHS와 접속돼 있으며 국내에서는 4월 말 현재 한국산업은행, 한국외환은행, (사)한국능률협회 등 모두 2천17개 기관에서 이용하고 있는 기업통신 서비스다.

### 인터넷 웹서비스 PC통신 이용자들 높은 호응

- 천리안 인터넷, 웹서비스 제공하자마자 하루 평균 1천 3백여 시간 이용
- 분당 30원의 가격과 편리한 접속률 제공으로 특히 초보자 사용 많은 듯

인터넷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는 가운데, PC통신으로 제공되는 인터넷 웹(WORLD WIDE WEB)서비스가 이용자들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C통신서비스인 천리안을 통해 「천리안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데이콤은 웹서비스를 개시한 지난 4월 25일부터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일평균 1만4천6백71건의 접속과 일평균 1천3백27시간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수치는 웹서비스 이전 인터넷 일평균 이용자 7백여명에 비해 약 3.3배 정도, 이용시간은 기존 하루평균 5백46시간에 비해 약 2.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특히 천리안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증가가 기존 사용자보다는 인터넷에 처음 접해보는 초보자들이 대거 접속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실제로 1인당 하루평균 사용시간만을 볼때, 웹서비스 이전의 0.78시간에서 웹서비

스 개시이후 0.58시간으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판단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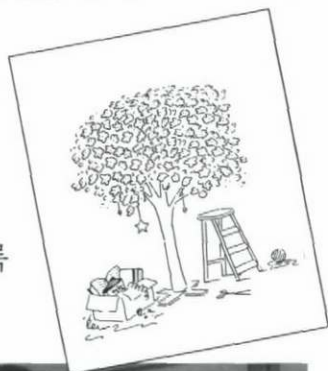
## 한국PC통신(HITEL)

### 빛고을 광주 통신망 개통

광주시정소식이 하이텔을 통해 서비스 된다. 광주시는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중정보통신망(하이텔.천리안)에 ‘빛고을 광주’란을 개설, 서비스를 시작했다.

‘빛고을 광주’는 광주 시민등 PC 통신 가입자에게 하이텔과 천리안을 통해

광주시정소식이나 주요정보를 제공하고 가입자들이 각종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게 함으로써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설됐다.



이중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는 민관이 하나가 되는 열린 대화의 장이며 시민편의 위주의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컴퓨터를 통해 민원을 접수, 처리함으로써 민원인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도심지 교통혼잡을 줄이는 등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부터 공중정보통신망회사와 협의를 거쳐 민원접수·발급, 시정 안내, 여론수집, 관광안내등 각종 자료를 갖춰 이날 개통했다.

## 삼성데이터시스템

### 동아투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프로젝트 수주

삼성데이터시스템(대표 남궁석)은 최근 종합금융업으로 전환을 앞둔 동아투자금융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 96년 3월까지 9개월에 걸쳐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는 기존의 투자금융과 종합금융 업무를 변화하는 새로운 금융환경에 맞게 재구축하는 것으로 SDS는 한국종금·경수종금·영남종금·삼희투금 등 종합금융 MIS(경영정보시스템) 구축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체 솔루션으로 개발한 SIMBOLS를 적용시킬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다양한 금융상품을 종합관리, 고객정보 관리, 자산부채의 효율적 관리 등을 지원하는 종합정보시스템으로 기존 종금MIS업무에 \* 고객별자산 및 신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우량고객 관리시스템 \* 신규업무개발에 대해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금리 및 환거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자금흐름 모니터링시스템 \* 이질적이고 다양한 종합금융업무를 체계적으로 통합해 일일 단위로 결산할 수 있는 통

합회계 관리시스템 등 서브시스템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 시스템은 서버로 오픈시스템인 HP9000을 채택해 시스템 이식성이 뛰어나고 애플리케이션 개발 틀인 파워빌더를 사용해 완벽한 GUI(그래픽유저인터페이스)환경을 제공하는 등 클라이언트/서버환경을 구현하고 있다.

## LG정보통신

### LG정보통신, 한국이동통신CDMA장비 업체로 선정

한국이동통신의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방식 디지털 이동전화 시스템 공급업체로 LG정보통신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장비공급업체를 선정, 본격적인 디지털 이동전화 시스템 구축 준비에 나서고 있는 신세기통신과 한국이동통신의 이동전화 서비스 디지털화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국이동통신(대표 서정욱)은 내년 초 상용화 예정인 CDMA 방식 이동전화 서비스를 위해 지난 3월말 삼성전자·LG정보통신·현대전자 등 국내 개발 3사로부터 제안서를 접수, 시스템 공급능력·납품일정·성능및 신뢰성·상용시험 중간결과·경제성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가장 우수한 평점을 받은 LG정보통신을 최종 공급업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LG정보통신이 한국이동통신에 공급할 시설은 교환기 2개 시스템, 기지국 1백여개 등 총 1천억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50만~60만 명 정도의 가입자를 수용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 한국이동통신측은 밝혔다.

한국이동통신이 CDMA 장비 공급업체를 서둘러 결정할 것은 서울등 통화밀집 지역의 이동전

화 통화품질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가입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데다 이동전화사업이 경쟁체제로 돌입하는 내년초에 후발사업자인 신세기통신과의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국이동통신은 이번 CDMA장비 공급업체 선정과 동시에 정부에 3MHz대역의 디지털 전환용 주파수를 신청했으며 7월부터 9월까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하반기경 상용시험을 거쳐 '96년 1월부터 서울·경기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CDMA 디지털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이동통신은 향후 CDMA장비 공급업체 선정방식을 이번 1차 장비 공급업체 선정과는 별도로 상용시험 진행상황, 기술개발 추이 등을 보아 단계별, 지역별로 실시할 계획이며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경쟁효과를 높이기 위해 원칙적으로 장비 공급업체를 복수 선정할 방침이다. 한국이동통신은 이번 서울지역 장비 입찰에 이어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나머지 4대도시지역의 CDMA장비 물량에 대한 입찰을 금년중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 한국전자통신연구소

### 음성언어번역 연구그룹 출범, 본격 활동 개시

음성인식·기계번역·음성합성 등 자동번역 분야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음성언어번역 연구그룹이 최근 출범돼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들어갔다. 한국전자통신연구소(ETRI, 소장 양승택) 통신시스템연구단 음성언어연구실(실장 이영직)은 정보통신부 국책과제인 "다중매체 환경에서의 대화체 음성언어 번역 통신기술개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ETRI 소속연구원과 외부연구인력을 결합한 연

구그룹을 최근 결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연구그룹의 결성은 대화체 음성언어번역을 위한 국제 컨소시엄인 C-STAR를 비롯해 일본의 ATR, 미국의 CMU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인력보강의 필요성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ETRI측은 밝혔다. 연구그룹의 구성은 ETRI 음성언어연구실의 연구원 18명과 외부연구인력 6명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대전시 유성구에 별도의 연구실을 마련해 최근 장비설치를 마쳤다.

외부연구인력은 대학교수 5명, 포스트닥 1명으로 대학교수는 초빙연구원의 자격으로 주 2~3일 근무하게 된다.

연구그룹은 대화체 음성언어 연구에 있어서 국제수준과 공동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과제 위탁이나 용역 형태의 공동연구만으로는 미흡하다고 판단, 외부인력이 소내인력과 실질적인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구그룹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음성언어번역 연구그룹은 앞으로 음성인식, 합성및 기계번역기술 전반에 걸쳐 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언어학적 지식의 활용방법에 대한 연구도 함께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 한국무역협회

### KOTIS 이용요금 대폭 인하

무협은 종합무역정보서비스인 KOTIS의 사용요금을 조정, 오는 6월 1일부터 가입보증금을 현행 33만원에서 9만9천원으로, 월 이용료는 10만원에서 3만원으로 각각 대폭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무협은 이와 함께 가입보증금 연납제도도 병행 실시, 가입보증금없이 10개월분의 요금으로 1년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중전화망을 이용할 때 통신료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민간업계에서는 처음으로 데이터전송망인 "01436" 서비스도 동시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전국 주요도시에서 지역번호나 국번없이 01436번으로 접속이 가능한데 기존 통신요금보다 30%가 할인된 요금이 적용된다. KOTIS는 무협이 자체개발해 지난 '89년부터 무역업체에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가입자수는 1천3백여명에 달한다.

그동안 KOTIS의 이용요금은 중소기업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돼 왔다.

## 대한무역진흥공사

### 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로 개명

대한무역진흥공사의 기능에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 지원업무가 추가되며 그 이름도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로 바뀐다. 정부는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한무역진흥공사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와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오는 7월부터 시행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개정안에서 해외무역관에 대한 외국정부의 조세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이 공사가 비영리기관임을 명시하는 한편, 투자지원업무 수행과 관련해 통상산업부장관은 재정경제원장관과 사전협의해 감독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 연구개발정보센터

### 국가과학기술 정보 유통시스템 구축

정보이용자들이 최신의 연구개발 및 기술정보

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오는 '97년까지 과학기술전문자료센터가 설립되며 2004년까지는 총 1천2백만건의 과학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될 전망이다.

연구개발정보센터(KORDIC 소장 성기수)는 국가과학기술 정보유통체제를 조기에 선진국 수준으로 확립해 나간다는 계획아래 국내 정보 관련 기관간 역할분담 및 협력체제 구축, 해외 주요 정보기관간의 정보교류 및 협력사업 등을 본격 추진기로 했다.

이를 위해 1천2백만건의 과학기술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련기관과 연계해 '97년까지 "과학기술전문자료센터"를 설립해 전자도서관으로 운영하는 등 과학기술정보자료를 획기적으로 확충해 나간다는 것이다.

또 과학기술정보 유통망 및 공중정보 통신망 등과의 연계를 통해 정보유통기반을 확대하며 정보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표준검색시스템, 다국어자동번역시스템, 멀티미디어 정보처리시스템 등 첨단 과학기술정보 유통시스템의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가 과학기술정보유통체제의 근간이 될 지역정보망 구축을 위해서는 2003년까지 전국의 10개 주요 공단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정보 유통체제를 확립해 지역정보, 과학기술정보, 해외정보 한글자동번역시스템 등 정보공동 이용체제를 구축하는 등의 지역정보화사업을 통해 제조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혁신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해외사무소 및 해외 과학기술협력단체 등을 활용하고 주요 지역에 정보수집 전문요원을 파견하는 등 해외 과학기술정보 수집체제를 구축해 해외 과학기술정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